



우리는 보편적인 조화를 맞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How do we 'prepare' for universal harmony?

제임스 스펜서 (James Spencer)

크리스천 사이언스 저널(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2011년 12월

실재하고 영원한 것을 배우자, 그리고 영의 통치, 하늘의 왕국 – 상실되거나 영원히 숨겨져 있을 수 없는, 보편적 조화의 통치와 지배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메리 베이커 에디,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208 쪽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땅 위의 평화, 그리고 인류를 향한 선한 의지”(누가 복음 2 장 14 절)라는 지극히 경이로운 약속을 담고 있다. 사실상,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오실 “평화의 통치자”(이사야 9 장 6 절)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하였다. 내전, 세계적 테러, 재정적 파국, 그리고 “자연” 재해 등으로 분열된 듯한 세상에서, 평화의 약속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밝히는 빛처럼 보편적 희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에 불과했다. 땅 위에서의 평화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 - “보편적 조화의 통치와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사명의 전체를 필요로 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그 길을 명확히 밝히셨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를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 세상의 복지와 구원에 대하여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실재하고 영원한 것을 배우자...”

예수님의 전 생애는 놀라운 치유 역사와 유례 없는 사망으로부터의 부활과 최종적인 영적 승천을 통하여 신성의 권능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만일 그분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라기 보다는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로서 역사를 거쳐 지나가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 오직 **영과 그 나타남**만이 “실재하고 영원한 것” (*과학과 건강*, 468 쪽)임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왕국에 이르는, 어떤 손쉬운 남이 대신 닦아 놓은 길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 **영과**의 일치 – 즉 그분이 가르치셨고 실증하셨던 일치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오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요한복음 14 장 12 절)고 하셨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예수님은 육신적 마음의 악마적인 암시들은 참된 권위가 없는 허상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육신의 모든 주장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승리는 은쟁반 위에 올려져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종종 손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선함이 악을 드러내고 파괴할 때 흔히 야기시키는 저항을 대면하여야 하였다. 공적 사역의 초기에, 악한 마음과 권능의 주장, 유혹자의 저항과 씨름을 하여야 하였다. 그는 황야에서 (오늘날 우리의 외로운 “황야”란 인간사의 적대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홀로 계셨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지와 영향력의 주장을 직시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역시 그리 하여야 한다. 그는 아이디어가 그 근원을 둔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음**과의 하나됨이 그분의 안전한 거처였다. 우리가 그를 본받아 우리의 **아버지**와의 하나임을 주장하여 이 안전한 위치를 획득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 역시 그 거처를 가지게 된다.

유일한 **마음**의 가상적 반대는 바울이 육신적 마음(로마서 8 장 7 절 참조)이라고 부른, 거짓되고 가상적이며 실체가 아닌 암시이다. 예수님은 황야에서와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하여, 육신적 마음의 악마적 암시들은 실제의 어떤 권위도 없는 단순한 허상에 불과하며, 어떤 실제적 형상도 없는 신기루, 어떤 실제의 권능도 없는 유혹, 어떤 실제의 법의 뒷받침도 받지 못하는 거짓임을 증명하셨다. 그것들은 **하나님**, 선(善) 안에서 어떤 자리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들은 실재성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 전지,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심을 명백히 깨달았고, 이 깨달음이 그에게 육신적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다.*

바울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린도 전서 2 장 16 절)고 말한다. 내게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체이심과 유일하심을 알아야 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깨달음이 악의 무력함,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신성의 의지, 즉 법이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완전히 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오늘 병들을 고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과 자신의 전체이심만을 아시기 때문에 – 즉 **그분**은 전체 자체,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 **그분**의 자아의식의 앞을 초월하거나 떠나서는 아무 것도, 누구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셨다. 이러한 자신을 앞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형상과 닮음 새라는 것을 그의 온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하신 메시지 – 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신성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 그리고 영의 통치, 하늘의 왕국을 위해 준비하자 ...”

완전함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완전함이 마음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 또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이 지식은, 우선 우리를 정자-난자 근원론에 대한 믿음과 이에 따른 유전적 질병들과 특성들로부터 분리시킨다. 더 나아가 우리를 세상의 증오와 복수와 시기와 탐욕과 속임수와 이기심으로부터 – 사적(私的)인 존재와 마음 안의 믿음에 뿌리를 둔, 적대관계와 전쟁과 갈등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차단한다. “보편적 조화의 통치와 지배” 하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 있는 우리의 안전한 거처를 볼 수 있도록 한다. 흔들림 없는 같은 조화 안에 거하는, 이 안전한 거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 왕국과, 수많은 고통이 있는 듯한, 그리고 문명 자체가 종종 가냘픈 실에 매달린 듯 보이는 현세의 상태와의 겉 보이는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즐거움과 건강과 자유와 함께, 각 사람이 매 순간마다 매 경험을 통해 물질성을 벗어나고 **하나님**이신 **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배우”고 “준비함”에 따라 그에게 온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셨다. 누가 복음에서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복음 17 장 20, 21 절) 그분의 대답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편적인 조화의 통치와 더불어 갑작스레 모두에게 단번에 와서 모두를 기쁨으로 가득 찬 구름으로 감쌀 것이라 기대했다는 것을 분명 의미하며, 아직도 어떤 이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느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하늘의 왕국은 선택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여정 끝에 있는 대망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영의 통치,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것을 찾고, 인지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살기 위해 사랑으로 애쓸 때, 드러나게 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요한 사도는 이 나라의 보편적인 조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의 황량한 팟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이 왔다. (요한 계시록 1 장 9 절 참조) 그는 보통의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고, 작은 동굴에서 살아야 했다고 한다. 그의 험한 경험과 깊은 기도의 결과로, 물질적 세상은 그에게 거의 매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요한 계시록 21 장 1 절)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영의 실재와 사람과 우주에 대한 그 통치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물질적 희망과 목적까지도 함께 그의 생각 안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것이다.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 그것은 상실 될 수도 없고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영의 이런 통치를 받거나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보이지 않은 채로” 남겨질 무엇인가? 요한이 팻모 섬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자신의 생각 안에서 발견하였듯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은 은쟁반 위에 차려진 채로 오지는 않는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크나 큰 사랑과 단련과 자기 성찰과 정직함과 인내심과 많은 겸손함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하늘 나라 – 유일한 실재성으로서의 영에 대한 순수한 의식 – 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게 될 때, 그리고 그 장대함과 영광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습득했을 때, 우리는 이를 맞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질성의 길 보이는 지배를 더 기꺼이 부수어 버리고, 여러 해 동안 지고 살아온 여러 가지 결점과 심적인 짐을 더 기꺼이 놓아버리고자 하는 영적 발전 선상에서 도달하는 지점이다. 사람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바로 그 때에 그에게 오는 그 메시지의 다시 나타남이다. 에디 여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인간들이 그들의 정신적 강보(아기를 감싸는 포대기)를 버림에 따라, 생각은 발전하여 표현이 된다.” (*과학과 건강*, 255 쪽) 생각이 더 위대한 시야를 얻게 됨에 따라 버리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자신의 사명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실 즈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 장 22 절)고 하셨다. 그분은 이미 위로자, 성령이 궁극적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 장 26 절) 는 것을 예언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현세에서의 제자로서 받을 이 위로자는 신성의 과학, 존재의 조화를 드러내고 유지하는 신성의 사랑의 영원한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 누구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조화의 법 – 을 기꺼이 받을 때, 우리는 이 법이 세상을 삼키려 위협하는 온 종류의 소란을 중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실증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우리의 흠 없이 순수한 정체성을 드러내어 준다. 예수님께서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린 아이들 안에 있는, 우리의 죄 없는 그리스도적 특성을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신성의 원리로부터 발산되는 순수한 신성의 법으로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생각을 어떻게 쇠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로 이곳, 바로 지금, 실용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신성의 사랑의 통치가 모두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한다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이 보편적인 조화는 저항되거나, 무시되거나,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제임스 스펜서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자 선생이다, 그는 매사츄세츠 주 브루클라인에서 산다.